

聖句

내가 이 말을 듣고 앓아
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
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금식을 배무시기
를 강구하였노라
(사 38:10-14)



發行所
福音新聞社
東京都千代田區
神田區横町2-4
振替口座東京182538
電話 神田 25 2623番
編集人 吳 尤 吉
主 筆 田 榮 澤

社説
基督教人政治

종교는 정치와 본질하여 정
의와 진리를 뜻하며 나아가
고 현실사회의 죄악을 떠나서
신앙을 중심으로 살며 천국을
목표하며 행하는 것이 그 본
질이라 하였지만 일종의 불
안도 그 밖에 영세적 종교가
나도 이상에 종교인도 이상성
을 하느님만 또한 다른 등
포로 더불어 한 국민으로서
살아야 하겠고 죄악사회에서
부딪히면서도 한 인간으로서
생존을 유지하면서 종교인도
생활을 하여야 할 것이다. 예
컨대 그 최후가 도중에 '아
니'에서 '저'로 변하여 '나'로
정지할 때도 하계 되는 것이다.

政治會議는期限付
國連이失敗하면韓國은自由行動

李大統領의第一聲明

유전조인이 가짜였다는
고에 판문점에서는 한국측
대표 시키지 않은채 비
교도 참석 시키지 않았다
고 일방적이 계속되었다
나 주의를 기울였다 이
통영은 22일 이에 경고하
며 '한국은 국련군측이 북한
서 중공군을 철퇴 시키기
한 유전후의 정치회의 90
간을 국련에 동의한 것이다
만약에 국련측이 그동안의
력이 실패하면 한국은 자유
위하여 독자적인 행동을 취
것이다' 하는 성명을 발표
하였다.
이 성명은 주로 회담에서
한국측이 아메리카에 요청한
가 확인도 없이 한국을 유
에 고려가는데 생긴 것인
下외무부장관은 '아메리카가
국외 요청을 확인하지 않
한국정부는 주로 회담에 협
속한 내용을 공포할지도 모
른다' 하고 '그 결과에 국
이 묘하게 한국을 논가림
커서 공산주의자와 수처스
타협에 동의한 최의의 결과
를 세계에 드러내게 될것
하 21일 열레스트장관이
성명한 '한국은 정치회의에
제

國連對韓政策反省要望

駐美梁裕燦大使強調

駐美한국대사 영우찬박사는
아메리카 외교정책회의 오찬회
에서 한국문제와 세계정세에
대하여 오지 다음과 같이
하였다.
이승만대통령의 포로석방이
세계다른 지역에 자유의 불
을 부쳤다 유엔과 강대국들
그리므로 신자도 정치와 경제
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것이요
따라서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있는것이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비록 중
교인이라도 조국을 잊을 수 없
고 골육친척의 운명에 관심과
우려를 가지지 아니할 수
있는것이다.
본지는 기독교신문 이면서도
한국의 정치문제를 논하고 사
회문제를 취급하는 까닭이 위
에 말한 근거에 있는것을 현
금 독자도 잘 알고있다. 지
금 조국이 중대한 위기에 직
면하여 국가와 민족 전체가
생사存亡의 갈래길에 헤매고
있고 독자 여러분의 현재

英國人

다. 남한이 부패한것이 미
국대론이라는 사실인가.
담. 우리는 우리나라를 남
이라고 부르지 않고 '대한민국'
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대한
국은 유엔의 감시밑에서 총선
거를 한 결과로 된것이다. 그
렇게 정부가 된
다음에 곧 유
엔에서는 대
한민국이 한국
있어서 유엔의 합법적인 정부
요도 자주권 가진나라라는
것을 발표하고 인정하였다. 이
것은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내정에 간섭하지 못할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것이다. 우리는
내에 정치에 대해서는 절대
의 책임을 지지 않는 당신대
아는바와같이 우리는 철의 장
군이 파괴되는 조건을 동의
하고 함은 함당치 않은
일이다. 최근의 공산주의 공
세(攻勢)는 공산주의자를
신용할수 없다는것을 증명하
는 사실이다. 한국인들은 유
엔의 정책에 사실은 2重의
책임이 있는바와하여 의심한
동시에 성명하 여기는바가
있다. 그 이유는 한국통일을
목적한다고 공언하면서 공산

死線 33東

警察은暴動

東북독일정부는 서구파에서

하도록 지도하려는 목적을
가졌었다. 본지의 이러한 사
를 이해하거나 못하거나 본
에서 취급하는 조국의 중대한
사건에 대하여 흥미를 가질수
없거나 영웅을 내세우는 독
자시대 한사람도 없을 것이다
그리고 우리 조국이 현재
공산주의의 침략으로 무서운
사면이 생겨서 민족이 도탄에
빠지고 피와가 수난을 당하고
있으며 기독교와 양심할수
없는 것은 감할수 없는 사실이
니와 여기에 대하여 불만이
아니 반감을 가지는이는 매우
유감이지나 우리의 동지가
니요 우리들 대적하는 본

이것이 바로 한국

高 鳳 京

오래가 될수록 더 그렇다. 문. 북방에 금광의 자원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미국이 북방을 지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결코 그렇지 않다. 미국은 완전히 자유를 수호하기 위하여 싸운다. 한국에 미국사람이 얼마 군을三八선이북에 찾아내기 만하면 침략자에 대한 충분한 처벌이라고 하는 말이 있을은 무엇에 근거하는 것이나? 그것은 세계 신정칙의 목적을 망각하고 아과 타협 하는 것은 안된다 하면서 사실은 아과 타협하는 것이 악인 것에 차의가 없다고 경고하였다.

獨餓饑饉市民 動念慮傍觀

한나니 다시 말할것 없고 일면 주시하는 이 가운데 너머 교회에 대한 기사가 많고 기독교선전장은 글이 있을 지라도 그것을 양해하고 있어주시기를 바란다 우리는 신앙이 인생생활에서 떠날수 없는 중대문제인것을 알고 또 기독교가 오직 하나의 참 종교인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 동포가 다 우리와 같이 기독교신앙에 들어와서 정신적으로 바른 길을 가고 신앙적으로 많은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우리의 충정을 이해하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입어주시기를 빌고 바라는 바이다.

(3)

나 사는가. 담. 일정시대에 우리가 미국 사람과 접촉한 것은 선교사밖에 없었다. 우리는 그들의 선교사업에 대하여 감사할뿐만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통하여 그들이 가진 대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가진 대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통하여 그들이 가진 대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특권을 통하여 그들이 가진 대우에 대하여 감사할 수 없다.

美國 東獨에救濟食糧提供 쓰는糧食援助中止要求

아이젠하워대통령은 東部독일 정부가 아메리카의 보내는 구제식량을 거부할지라도 무상으로 인도적인 입장에서 공급을 계속하겠다고 西部독일 당국에 협력을 요청하며 친서를 아데나우어대통령에게 보내었다.

東西會議即時招集主張 尹介判副首相聲明

누슈케東獨부수상(기독교인주 동맹당수)은 東西독일회의를 즉시 소집할것을 성명하였는데 누슈케는 독일문제의 평화적인 해결이 방해되는것은 아데나우어대통령이라고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韓國船舶增強에背心 販賣屯數를制限

최근 한국에서는 일본 선박을 구입하려는 연락이 빈번하다는데 이 사실에 기획할 것 보고 있던 일본측은 「한국재건

가 다른것을 알게되었다. 한국을 통일시키려는 목적으로 일련된 미소공동위원회가 소련의 비타협으로 결렬되자 유엔에서 한국측의 총선거를 결정하였는 소련이 총의 장막을 걷기 위하여 처음으로 할수없이三八선을 거침으로써 대한민국을 세울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후에 미국과 한국을 돕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한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막을수있도록 유엔에서 한국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막을수있도록 유엔에서 한국군을 지원하고 있다. 한국이 공산주의 침략을 막을수있도록 유엔에서 한국군을 지원하고 있다.



○심가 며 총을 하라! 잘하고 신화하여 라! 이는 옛날이 스라일이

제선을 넘어서 一人당 一兩二十센트의 양식표를 배어갔다 한다 이것을 본 東部독일 정부는 폭동이 다시 일어날것을 두려워서 방관하였다 (D.P. 소식)

소련의세미요노프 독일주제 고등법원은 二十二日 코난트 아메리카 변무판에게 「아메리카는 東西독일 경계지점에서 東쪽방향 인민에게 식량원조를 즉시 정치하라」는 각서를 보내었다고 한다.

독일국민의 대다수는 독일통일과 민주화와 평화를 희망하고 있다 통일과 독일이 무력으로가 아니가 독일인 자신들의 협조와 강대국간의 협조에 의하여 달성하리라는것은 이제 의심할 여지 없다

에 협력하겠다고 「고 국회에서 까지 나팔을 불던 외무성을 비롯하여 통상성 운수성은 한국수출선박대척을 세우고 일본

○심가 며 총을 하라! 잘하고 신화하여 라! 이는 옛날이 스라일이

부인이 전도회 연합회에서 八月三日부터五日간 大阪사파이(會)수상고등학교에서 연합회수양회를 개최한다.

○심가 며 총을 하라! 잘하고 신화하여 라! 이는 옛날이 스라일이

부인이 전도회 연합회에서 八月三日부터五日간 大阪사파이(會)수상고등학교에서 연합회수양회를 개최한다.

○심가 며 총을 하라! 잘하고 신화하여 라! 이는 옛날이 스라일이

부인이 전도회 연합회에서 八月三日부터五日간 大阪사파이(會)수상고등학교에서 연합회수양회를 개최한다.

美國宗教界는復興

長老會明年에는合同可能

韓 景 戰 博 士 談

아메리카를 두달에 걸쳐 방문 중이던 한경직(韓景職) 박사는 지난 26일 귀국도중東京에 들렀는데 그간 어엿소감을 다음과 같이 말씀 하셨다.

우리나라가 해방된후 세번이나 아메리카에 가 보았는데 이번에는 아메리카 기독교동맹이 대단히 번한 것과 한 국에 대한 태도에도 호의적인 점을 많이 보았다.

스기독교회는 뱁그랜트의 대부흥전도를 비롯하여 각처에서 본관회의 집회가 열리고 있었다. 그런 새 부흥은 할리울영화계에도 파급되어 그속에서 신앙운동이 일어나고 있으며 뱁그랜트의 부흥전도는 학구적이고 하인 루린스(Stenhouse) 대장전도법 같은 것을 하도록 되었다.

아메리카 방문중에 미네아폴리스에서 북장로회대회를 보았는데 한국교회 25萬五千(二萬五千) 원조금중 최(對)전교회를 결성하여 대한 인사를 할 기회가 있었다. 회중 수 천명은 총 기림으로 찬성을 올렸는데 그것이 한국에 대한 관심의 표적이었다.

아메리카 장로회는(북장로회) 남장로회 연합장로회가 있는 데 명년에는 합동할 것이다.

希望은主 예수基督

第二回世界教會會議

米國에 반스론에서開催

최근 기독교계에 의하면 제 2회 세계교회회의는 명년八月十五日부터 一週間 아메리카 이리노이주 에반스톤에 있는 노드위스트大學에서 열리리라 한다.

그 주제는「教會와世界의 회」로 주제는「主 예수 그리스도」라는 데 이 회의는 一九四八年에 和蘭 암스텔담에서 제 1회의회를 개최하고 명년이 제 2회의회가 되는 것이다.

제 1회의회의 때에 한국서도 수 명의 대표가 참석하였는데 마즈막에 전경 때문에 분리되었던 세계교회는「하나이 되기를 피」하여 기도하며 갈라졌던 것이다.

명년회의의 주제를「교회와 세계의 회」로 정하고 주제는「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것은 이미 구성되었던 자원위원회에서 연구하고 있다.

同情的批判態度를要請

갈발트對 베레키論爭에

在米 改革派牧師協會聲明

공산정당인 할가리에서 개혁파교회들 지도하고 있는 베레키 감독에게 서구파의 신학자 칼·발트가 편지를 보내어「공산정당 하에서 활동하는 그대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 같다」고 한 경고의 글은 본紙에도 번역 게재

한파와 갈가리와 아메리카에 거주하는 할가리 개혁파교회 회의의 60여명 교직자들은 칼 발트의 편지문에 대하여 요지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했다.

칼·발트가 지적한 대로 베레키 감독이 할가리에서 공산주의 정권과 그 정책에 대

熊本地方水災慘狀을告함

安榮俊牧師

지난 29일 이후 수일간에六十餘年내의 대홍수를 당한 구마모토시에 계신 안영준목사님은 현지의 정황을 대략 다음과 같이 적어보내셨는데 참혹한 사실보고에는 애다는 정이 끊어지는 바가 있다. 목자의 분기를 바라며 이글을 실는다.

熊本 大洪水로 여러분의 영리와 위로와 격려를 받고 미안히 생각합니다. 저는 홍수나 기 2주일전에 구마모토禮拜堂 건축기금을 모으려고 관동방면 갔다가 28일 낮에 龜谷(키야)

이로 보나. △한국전란문제에 있어서는 심적으로 이승만대통령의 견해 동의를 표하고 있었다. 그러나 국권복구의 아세아아람·유니온 여러나라의 합의를 얻지 못하여 부득이한 휴전에 이른것으로 본다.

지난 20일 오후 9시에 東京의 어떤곳에 우리 청년 학생들과 우리 사회의 모모하신 선생 두세분과 합석한 간담회가 있었다.

그 자리에 참석한 이들은 현재에 있어서도 사회지도자로서 불완전한 장래의 우리나라 각 부문에 지도적 중진이 될 사람들이 많았다.

이야기의 중심은 우리 사회의 어떤 기관의 건물 하나를 운 영하여 나가려는데 관한 경비문제에 있었는데 상식적으로 보아서도 그다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다. 근 세시간이나 걸려서 겨우 타협점에 이르렀던 일이었다.

여기서 문제 점은 그 회합 롯데·베리·달문·세랑그들의 이름 높은 학자들이 참가되어 있었다.

韓 國 人

「어떤 會合에서」 무대선 물로두부가 대문전들 하였던 일이 있었다. 어떤 호기심이 강한 사람은「그것 참 장난이 없을게다」하였다. 그후에 그 대문전 전말을 전하는 국제통신원은 일장관과 물로두부위상과 우수면서 어깨를 잡고 환담하는 사진을 첨부하여

피양(橋梁)이 유실된것은 말할 것 없거니와 강변토성이 허무져서 구마모토 전시가 순식간에 물바다로 화하였다는데 지금은 집집마다 사태를 파내기에 여력이 없습니다. 어물게 흙이 쌓였던지 이것을 파내는데 약 40萬원의 경비가 필요하다고 하니 추상할수 없습니다.

간곳마다 상등지에 살지 못하는 우리교포들의 처지는 여기도 이번 수재에 차마 형언할 바가 없습니다. 우리교포신도들은 그중에 일부분인데 죽은 이는 없으나 목숨만 건졌다고 함이 과연이 아니었다. 예를 들자면 鄭집사의 작은 딸이

집우루로 흘러갔는데 기르던 도야지 20여마리를 비롯하여 家財천구 전부를 잃었습니다. 우리교포 신도 태반이 이러한 처참상에 이르렀습니다.

교회집회는 교회가 통치 못해서 못하고 있습니다. 겨우 자 동자가 통하여 마비상태는 면 하나 대문전을 이루고 있습니다. 새로 세우려던 예배당 공사는 세멘트 기초공사의 일 부가 허무러졌으나 큰 손실은 겨우 면했음은 여러분의 기도 와 하나님의 도우심인줄 믿습니다.

이같은 형편에서 교역자수양 회에도 참석하지 못하였을뿐 아니라 은교회원들이 고생하는데 나만

평안히 지낼수 없었고 사실 神戶항목 여비와 五千圓을 낸 만 한 용기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難民民들을 방문하니「예수 교인들은 이런때에 피차 구제하는 일이 없느냐」고 하는 말을 맞았는데 다소를 막판하고 이런때 구제금품이 있으면 이를 위로라도 할터인데 혼자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로 위로할 정도가 넘었습니다. 일반사회단체의 구제활동은 눈물겨운 바가 있습니다. 수 중무일상으로 살던 집에 제위 진 황을 파내며 남은것을 얻어보는 정경은 또한 내심경에 서도 눈을 가리우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상대측의 말은 듣기도 전에 안다고 하면서 혁명투사 같이 주먹을 부루런고 눈알을 굴려가면서 자기의 주장을 세우려 한다.

그러면의 회합을 「오펜지조노 체이라 하던 어머가? 우리는

求道者

데 최근에는 기원전 一四四
 年 전후인듯 하다는 학설이
 유력하여 지고 있다。

四 紀 錄 年 代 이 책은 함

이제부터 디스커션이 많은데
장편만 남기고 단편은 방
성파있고 아름다운 분
의 회합을 강도록 힘쓰자.

이 책을 출애굽기 라고 부르는 것은 히랍어로 번역된 성경에 부친 표제에 "나오고 가는 의미로 적혀져 있는 것에 따라 옮기워진 것인 데"라 명시되어 있어서 또 스코틀랜드인이 모세에게 인도를 받아 애굽에서 "나오고 가는" (一九〇一)년

원래 것이다. 따라서 기록한 연대도 일정한 시기가 라고 할 수는 없다. 이 문제는 출애굽기 뿐만 아니라 "모세의五經" 전체에 관계되는 문제인즉 독자는 산중히 연구하기를 바란다.

五本書의彙纂 정치적으로 보나 종교적으로 보아서 이

줄은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서 동정적으로도 주목해야 할 것이다. 지금의 東西雙方에서 자기들의 체면을 지키기 위하여 신학적 논쟁을 할 때는 아니다. 항가리의 개혁파교회는 그럴 것이 아니다. 구미측이 동정적인 태도를 취할 수 없으며 차라리 잠잠히 침묵을 지키는 편이 나을 것이다. 신학적으로 보아서 베렝키아의 입장의 부족을 채워주는 것은 칼발트가 정당하다. 그러나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신학적인 분석과 냉정한 말보다 진리가 어떻게 표현된 말인가 하는 점에서 대단한 차의가 생긴다. 그럼 의미에서 베렝키아는 東구라파에서 복음의 使信을 전달하려는 그리스도인의 상징이다. 하여나 (복음과 세계) 詩에서

를 기록하였기 때문에 된나
나온 것이 예금(豫金)이라
하여 출(出)·예금(豫金)·기
라고 한 것이다.

二本書의內容 이 책은 역사
와 율법의 두 부분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다. 一장에서
十八장까지는 예금에 내려갔
던 야곱과 그 족속인 이스
라엘 민족이 모세에게 인도
를 받아 애굽을 탈출한 후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거쳐
서 시내산에 까지 도달하는
기록인 것이다. 다음은十九
장에서 四十장까지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이사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
성에게 주셨다는 율법에 관
한 기록이다. 즉 모세의 십
계명과 계약과 장막에 관한
규정과 장막을 짓는 일 등
의 기록이다. 그 속에 역사
에 관한 기록이 라고 할수

출애굽기의 역사는 이스라엘
민족역사상에 중대한 사건이
있다. 이 사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민족은 하나님과의
약을 받은 백성으로써의 자
각이 깊어졌던 것이다. 이스
라엘민족 국가와 이스라엘종
교의 기초는 이때에 굳어진
것이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신앙적인 민족으로서의 이스
라엘의 건국사(建國史)이며
그 율법과 심계명 같은 것
은 회부라 종교의 중심이다
따라서 그리스도교의 토대같
이 된것이라고 할수 있다.

六本書의內容區分

前四 예금 탈출史 一一八
(一) 예금에서 살아가는 처한
이스라엘민족의 모습 一장
(二) 모세의 이야기 二一／四三
(三) 왕과의 교섭전후 五／六六
(四) 모세의 소명관계 六二／七三
五 九개 계명 七四／一一〇

舊教徒 맥카 — 시 困境에

이런데 구제공품이 있음이
를을 위로라도 할터인데 혼자
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로 위로할 정도가 없었습니
다. 일반사회단체의 구제활동은
눈물겨운 바가 있습니다. 우
진부원들은 삼년 전에 체위
정환을 파내며 남은것을 얻
어보는 정경은 문헌 내심경에
서도 눈을 가리우게 하는것이
있을니다.

공산주의에 관한 책조차
위버리는 언론을 이르켜 자
아메리카의 선봉에 문제가
고있는 맥카시시 아메리카
원위원은 급박에는 그리스도
회문제에 걸렸다. 그것은 상
조사분과위원회 간사 J. 마슈
즈氏가 오늘날의 아메리카국내
서 공산주의를 지지하고 있

카 - 시 困境에

금을 떠나 나온 年代는 확정할 수 없으나 正統(定統)로는 기원전 一二二五年 正月 즉 愍帝의 제十九대王朝 愍帝부터 主 吡라 하여 왔는	後國 서대산과 울진 十九四〇 여호와의 소리 十九 十계명 二十ノ一 21
서 자로부터 교회 싸움은 피 하려 하였으나 이번 일 때문에 임금이 곤란한 지경에 빠 졌다 한다 (R.P.의 말)	(一) 장막의 의식 二十二 一三 33 (二) 장막의 의식 二五 一三 一장 (三) 장막의 의식 二四 四장 (四) 장막의 의식 三二 一三四 장 (五) 장막의 의식 三五 一四〇 장 (六) 장막의 의식 三七 一 7 (七) 장막의 의식 三七 10 16 (八) 장막의 의식 三七 10 16 (九) 장막의 의식 三七 10 16

傳道說教

아버지이신 하나님

趙 洪 善牧師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은 제 자신을
어떻게 어떻게 기도할 것을 가르
쳐서 말씀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신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 주었다. "라고 하신 말씀은
다. 세상에 어떤 한 사람의 마음
종교는 어떤이며 기도는 어떤
의 자기만족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영혼에 무
신심을 부르는 것은 오만과 자만
하든 사탄의 음모라든 하나 큰 불
행운을 당한다든지 또는 다른 불
행운을 당한다든지 하는 인생의
가장 무서운 일이며 직면하게 된
때 영혼의 고통을 받게 된다는
간대고도 무서운 일이다. 빌지
는 뜻이 있는 것이 사람의 마음을
주님이라는 것은 천하 만민이
할 수 없는 것이요 불행의 원인이
이러 인생의 불행입니다. 이
주님께로 인생을 영속하게 하며
공하게 하는 것은 영속하게 하
다 주님은 인생을 영속하게 하
도록 배려하셨을 것입니다. 거기에
는 제물이나 학식이나 글씨
까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습
니다. 끝까지 사랑했던 자기의
육체까지라도 버리고 떠나야
되는 것이 주님입니다. 뿐만 아니라

라 이주님은 수역 인류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외가 없이
특별히 사랑하시고는 마는 것입니
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육신을
벗어놓고 사랑하시는 하나님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디로 가
야 하는가 최후의 행복을 내
는 순간에 있어서 하나님과
어대로가며 어떻게 되느냐고
대경실색 할 정도로도 하
주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
한 영혼을 영생의 종대한 문
재에 직면하게 되면 누구나 다
무엇이든지 의지하려 하는 마음
이러나 되는 것입니다. 이의지
하려고 하는 마음이 곧 우리가
말하는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과연 누구에게 빌어야
할 것인가 설혹 기도를 한다
해도 구원해 줄 상대자가 보이
지 않으니 아무런 응답이 없
는 마치 허공을 치는 것과 같
은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님께서는 여기에 확신이 하나
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믿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
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곳에 기독
신자의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은 어떠한 신

書齊 通信 「母の肖像」

村岡花子 著

엄마전에 나에게는 일본말로
번역된 스웨덴 작가 라-셀 쿠퍼의
트 이름 작이라는 "바라"를
읽고 독후감을 써 달라고 부
탁하였으나 요사이 어른 전도
에 분망하여 쓰지 못한다고 하
기에 독서관을 두기로 한 계획
이 틀려져 가는데 뭇사람에게
게신 부인 독자 한 분이 (이름은
본인인) 원으로 발표 하였습니
다. 유과 같은 편지를 부쳐왔다.
이 편지는 필자가 전일 村岡
花子 氏의 번역한 말-바-크女
史의名著 "母의肖像"을 읽어보
시고 그 후의 답장인데 그 속
에 독후한 상자가 들어있기에
주셔서 기록하고 나의 의견들
가 가까이 끌려갔읍니다. 아니

을 가하여 이번에는 이 책을
세우려 한다.
전일 말서와 책은 감사합니
다. 말-바-크女史에 대하여서
는 읽기부터 흥미하는 바가
있었으나 이번 「母의肖像」에서
새로운 관심을 가지게 되었을
입니다. 이 책을 읽으라고 권하
여 주신 것은 참으로 감사합니
다. 유과 「母의肖像」라는 것에
플려 전도자의 부인인 나의
어머님을 생각하는 한편 나도
어머니인 입장에서 흥미를 갖
고 읽기 시작하였읍니다.
한정 한정 읽을수록 이 책
은 나를 말-바-크의 심경에
가까이 끌려갔읍니다. 아니

본인이 물론 여러가지로 이야
기할 수 있지만 시간관계로 여
기에 세가지면 간단하게 이
야기 해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처음으로 하나님은 사랑의 하
님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모
두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났을
입니다. 배반했습니다. 그러나 하
나님께서는 우리를 간음 버리지
않으시고 다시 죄를 짓지 않을
방도를 주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
나님의 인애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죄악을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아버지
의 형벌을 받아주시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얼마
나 사랑하셨는가 하면 그 독
생자를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 주리만큼 드물게 사랑했
다고 쓰여있읍니다. 세상 어느
종교에 아 이집트의 모든 죄
를 용서하여 주신 그대저은 사
랑을 감사합니 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종교가 있었습니까 우
리 인류는 참으로 죄를 짓고
타락하여 하나님의 은사를 볼
을 수도 없고 그 일들을 볼 수도
없게 되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
는 다시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
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며 또 그
길을 여시고 계시는 말로할 수
없는 사랑의 아버지 입니 다.

「바크가 내 가까이 와주는
것을 느꼈읍니다. 그는 멀리
아메리카 사람이지만 우리 동洋人
같고 더욱더 선교자의 딸이라
는 점에서 감격깊이 내 어머니
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었을
입니다. 나는 그중에서도 이색인
종(異色人種)인 그 어머니가
일반적으로 아세아의 인간은
미개하다고 보고를 있는 배설
인종에서 유독히 中國人과 中
國을 이해하는 점에 감격하였
읍니다. (一三三回-지이하)
이 책에서 말-바크女史는
유색인종의 아세아관을 바로잡
으려하는 것 같고 몸시도 중국을
이해시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주목되었읍니다. (大地라는 中國
을 토대로한 말-바크女史著作
에는 더욱 그러한 주관이 확
실히 다)

傳道欄

두

길

배우신 아버지께서 우리를
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는 영혼의
로 하나는 서민으로 영혼으로
호르는 좋은 영혼을 위해서
같이 되고 서민으로 호르는
은 영혼을 위해서 영혼이 되었
다 한 뜻에서 호르는 영혼이
즐기는 동해바다로 호르는 영
기는 항해바다로 흘러서 상항하
거리가 멀어졌다.
무사함이 한 학교에 같이 입학
해서 한 학교에 같이 앉아서 공
부하던 중학생 두 사람이 십년이
지나도록 한 사람은 훌륭한 대
학교수가 되고 한 사람은 무서운
죄수가 되어서 감옥살이를 하는
것을 보았다.
옛날 파사군대가 펠리크를
공격하려고 가면 길이었다가
다가 큰 사막을 만나서 안락
군을 얻었다 펠리크보다 사막

물론 제목이 「母의肖像」였기
때문에 어머니를 그려내고 있
으나 미개 낙후된 나라에 선
교하는 문명국인으로서 선교한
다는 일반적인 우월감이 정정
사라져 가는 그 어머니는 냉
정하게 그려졌읍니다. 어
머니는 중국인교회에 방문을
가리지 않고 가정도 잘 돌보지
아니하는 남편 선교사에게 대
하여 인간적인 불만도 있었으
나 나중에는 인간적인 중국방
언 자기의 절반이 파란편지
같이 다시 생각까지 이르
는 심경을 그려낸 것입니다. 내
라운 감격이 있었읍니다. 내가
아버지와 어머니의 선교하는
당에 말-바크와 같은 이해관
은 심경을 소유할 수 있을까
문제입니다. 그들은 異民族이면
서 더욱이 異色人種이면서 문
려 바라고 그친다 (一)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때 우리는 그야요 예비없는 자식이요 유리방향하는 집에만 랑자 인정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나 없 는 것은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과 평안 과 행복을 찾아볼수 있겠습니까 오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내죄를 용서하시고 나 를 다시 그 사랑의 품안에 안아주소서 하고 하나님을 아 버지라고 부를수 있는 생애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시간 방송원고)

이 무서웠던 것이다. 이 군대는 불과 식량을 하 루분식 하루분식 정해가지고 아끼어 조공해 먹으면서 참고 갔다. 아직 앞길은 멀었다. 그 런데 하루는 방향은 틀리건만 맞은편에 떠런 수풀이 보이고 그 밑에 개울물이 흐르는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 군대는 기 뻐서 이제 수풀이 있고 물이 있는곳이 멀지않다고 물을 따 음대로 마시자하고 떠돌았다. 안넷군은 깜짝 놀라서 "아닙니다 저것은 신기루 입 니다. 참 수풀이 아닙니다" 그 래도 병정들은 듣지않고 어 서 그리로 안내하라고 야단이 다. 그래서 안넷군은 얼얼이 파랑개 질러서 소리를 지르며 "저것은 신기루입니다. 저절 로 보고 갔다가는 큰 일입니다. 전절입니다." 그 래도 병정들은 듣지않고 안내인을 단번에 때려눕히고 그 날 앞으로 행군을 했다. 그 런날 수풀은 종내 없었다. 이 는날 아침에는 어떤 시가지가 보였다. 그 방향으로 얼마큼 가보니 그것도 사라지고말았다. 이리하여 그 군대는 넓은 사막을 이리저리 끝없이 헤매 면서 아주 길을 잃고 간 곳을 몰랐다.

그런지 몇달뒤 어떤 약대를 타고 가는 대장(隊商)이 그 사막에 수천명 해골이 흩어져 있는것을 보았다고 한다. 사람이 한번 방향을 잘못정 하여 잘못가면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생기는것이다. 어떤 화가가 어떤 교회의

때 우리는 그야요 예비없는 자식이요 유리방향하는 집에만 랑자 인정합니다. 여기에 인생의 행복과 만족과 평안이나 없 는 것은 당연한 일일것입니다 이 아버지께로 돌아오지 않고 우리가 어디까지 사랑과 평안 과 행복을 찾아볼수 있겠습니까 오 여러분 나는 죄인으로 소이다 내죄를 용서하시고 나 를 다시 그 사랑의 품안에 안아주소서 하고 하나님을 아 버지라고 부를수 있는 생애에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기쁜 소식 시간 방송원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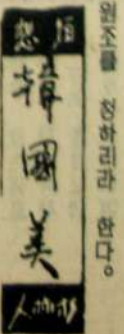
부락을 받아서 천사를 그러려 고 여왕날 어떤 농촌에 가서 나무 그늘에 누워서 버둥거리 고 놀고있는 어린이를 그렸다. 그런지 한 20년후에 이 화 가는 약마의 얼굴을 그려 불 러고 감옥으로 찾아가서 가장 용악한죄수를 보아달라고청했다. 이제 사형을 당하고 무서운 죄수가 있으니 그러라고 천 락 을 해서 그 사람을 보니 과 연 무섭게 생겼다. 그 사람을 모 델로 다 그림다음에 우연히 그 사람의 고향과 성명을 알 아보니 자기가 천사의 얼굴을 그 린 모델과 같아서 이상하게 생각하여 본인에게 물어 본즉 "저는 어머남에게 이야기를 들은즉 어려서는 얼굴이 픽 예뻐서 한번은 천사의 모델 된 일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데 얼굴이 잘났다는것이 장하 게 생각되어서 차차 방탕한 일에 빠져서 죄를 지어서 이 지경이 되었을지다" 하고 눈물 을 흘리고 있더라고 한다. 어떤 사형좌로 죽은 죄수가 숙기전에 하는말이 "나는 요만한것 풀이야 어떤 라 하고 조금씩 죄를 짓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다고 하였다 죄는 작은데서 부터 시작되 어서 점점 자라서 나중에는 스스로 벗어 날수없는 죄사슬 처럼 되는것이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 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 가 많고 생명의 문은 좁고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 가 적으니라" 마태 7. 13

香氣 生명을내놓고

성교사요 탐험가이던 「드레데 립·아아놀드」라는 사람이 북 인 아이를 하나 데리고 아르 리카의 형사 산길을 가던 길 이었다. 그런데 불안한 큰 사자 한 마리가 나타나서 으르렁거리면 서 쏜 뒤에서 오는 아이에게 달려들려고 하였다. 그것을 본 아놀드는 막 달려가서 두 팔을 벌리고 사자와 아이세를 가루 막았다. 그만 그귀세에 사자는 숨그머 니고리를 느리고 도망쳐버렸다

그양의 추장은 아이를위하여 생명을 내놓고 달려들었다는 성교사의 이야기를 듣고 같이 감격하여 "나는 그사람을위하여서는 어디든지 달려가겠다"가 삼이 믿는 예수는 나도말겠다. 그리하여서 신자가 되고뒤에 아놀드와 성사를 같이 하는사 람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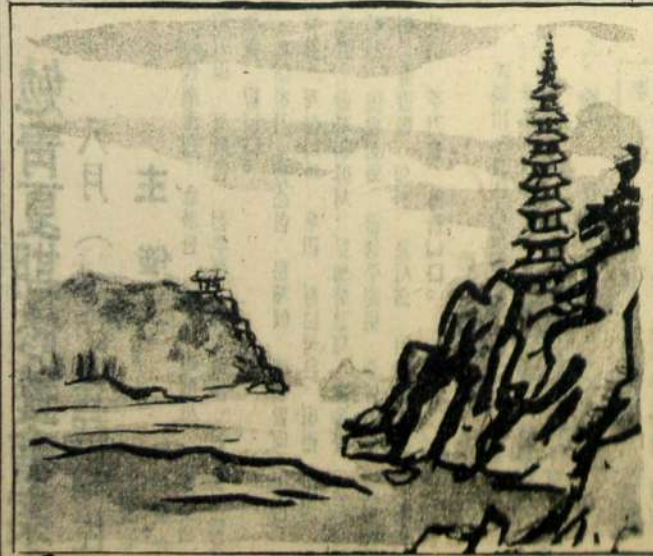
사람의 죄를 위하여 생명을 바치신 예수를 따라서 목숨을 걸고 나설자는 없는가? (요한 1서 4장 18)



大邱醫大 科學書庫 寄贈 大邱의 과학대학에 미국의 사립회 에 의학과 과학서류 책을 기증하여왔다. 이기중은 근간 미의학 협회지에 게재된 미국 동군군의장 원리암 산보다 소 장의 발의에 호응하여 원정 이다. 그리고 동대학 파거 이 념간 미국군의 무국에서 파과 서 자재 의로기구등의 기증을 많이 받았다고 한다.

水害救濟會 外國에 要請 九州地方 今後로 일본기독교 단 관계 교회는 五十개소 三 千명이 피해를 받았다는데 cc는 세계교회회의와 국제선 교연맹에 이 진상을 보고하여 부터 협력내리는 것이다.

漢江은 경기도 강원도 충청 도 北半의 물을 모아 百里의 뱃길을 만든 大河다. 강의 끝 어귀 가까이에서 서울 큰 거리 가 있으므로 옛날부터 적지 않은 국가 흥망사와 관계됨도 적지 아니한 것이다. 北漢江은 그 물줄기의 근원 을 금강산에 두고 南漢江은 멀리 충청북도와 경상북도와 강원도의 경계선인 태백산에서 부터 흘러내리는 것이다. 太白山에 가 까운 충청북도 의단양(丹陽) 에는 예로부터 이 강을 중심 한 단양八景을 이 란 말이있고 그 하류 여주 (麗州)에는 八景이런것이있다 長洲 燈지에 이르러 서는 강물속도 훨씬 넓어져서 수많은 배의 돛(帆)이 서 양들에 오르고 내리는 광경은 풍경의 정 취를 더하는 것이다



驪州 神護寺塔

하는 것도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을 가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자본주의라는 것도 호파적인 방
법의 하나이며 또한 대부분의
국민이 받아드리며 대단히 만
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오늘날 세계에 존재한 공산주
의는 잔인한 전체주의적 극히
악한 정치 형태이다. 그러나 자
본주의는 산업과 무역 경제적
사업을 해나가기 위하여 생긴
경제적 기구인데 그것이 잘 되
면 무시무시해서 오히려도 못할
지경이었다.

「가자 집으로 가자」
이유로 태호는 이렇게 결심하
고 두 자를 부르짖고 최대속
력을 내서 신당동쪽을 향하여
발거름을 빨리 옮겼다.
자기 집에 와서 땅을 씻으
면서 현관안에 틀어선 태호는
주저주저하다가 자기 방으로
문저 들어가 보았으나 명에는
흔적도 없고 높은 어머니가
파라와서 자기가 없는 동안에
된 일을 몇가지 전해준다.
아침에 혼자집에서 사람이
있었고 오후에는 보안대 사람
이 두번이나 왔다 잤다는
것이다.

「왜 보안대원이 무어라고 한
니까」
태호는 조금히 물었다
「무어 좀 물어볼 말이 있어
서 왔다구 하면서 내일 아침
에 일찍 동대문서루 좀 오라
구 그러라」
이말은 마치 태호에게는 세
포령이나 사형선고처럼 가슴이
선듯하고 끝이 땀 도는 것 같았
다.

태호는 웃 입는채로 텅 빈
방안에 너머저서 눈을 감고
복잡한 생각에 몸 부림을 할
지경이다.
「이 방으로 탈출해 나갈까」
그러나 명애의 소식도 모르
고 그날 수 는 없다. 왜 오라는
다라달수는 없다. 왜 오라는
인지 모르지만 자기 일 때문
인지 혹은 명애일인지 모르거나
와 자주간 아주 불안한 일이
다 혼자집에도 가보아야겠고
다리를 할려면 이 기회를 놓
치지 말아야겠다. 자기 어머니도
어서 피하라고 걱정할 것이다

고 못되기는 사람 자신이 그것
을 어떻게 운영하는가 하는 방법
에 달린 것이다 결국 자본주의
는 대다수의 민중을 위하여
또 가장 장구한 기간에 세계
의 어느 나라나 국민이 누린
이만큼 사람의 생활을 그 최
고표준에 있어서 공급할 수 있도
록 민주주의적 원리에서 사용
할 수 있고 또 사용되고 있는 것
이다.

勉青夏期修養會案內

八月(十七日) 琵琶湖佐波江
主 催
時代潮流의急激한변천속에서
신앙자의인생을
지키며果敢한전투를계속하는
신앙청년동무여러분의
우를돕는다.

파다하고생소한문제에대처할때
파다없거나
하고계심니까우리청년들은이런
종을한자리에서토의하고자
에서연말회와공동주최로수양회를
이행할것의견표시의기회로삼고
하여주기를바란다.

主 題 川「그리스도인의
一、時日 八月十七日(月)午後二時부터
同 二十日(木)午後三時까지 (三泊四日間)
二、場所 琵琶湖佐波江 Y.M.O.A. 會場

聖句
「그러나 자기에게서 죽은 자를 가운데서
이러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취시리라」
(에베소 5장 26절)

△禮拜引導
名古屋教會 金 德成牧師
橫濱教會 成 丁萬牧師
西成教會 金 元治牧師
카나다宣教師 파우원牧師
△四日간의時間배정과 순서
는 다음과 같다.
△第一日(十七日)(月)
午後二時 도착會으로 接受
三時 開會禮拜
司會 金元治牧師
三時半 主題강연 魚木博士
五時 自由
六時 저녁식사
七時 春季集會 報告及친목
九時 就寢
△第二日(火)十八日
六時 起寢
六時半 清心기도회
七時 引導 金德成牧師
八時半 성경연구
指導 卍기환先生
十時 發題 나중남氏
十一時 休息
十二時 點心
一時 分團討議
二時半 閉會禮拜
三時半 夕陽禮拜
七時半 宗會討議
九時半 就寢

△第三日(水) 十九日
六時 起寢
六時半 清心기도회
七時 引導 金元治牧師
八時半 성경연구
指導 李仁夏先生
十時 發題 卍勸舟氏
十一時 카나다青年運動
宣教師 파우원牧師
十二時 點心
一時 分團討議
二時半 自由休息
五時半 저녁식사
六時半 宗會도의
八時半 酒파이아
十時 就寢
△第四日(木)二十日
六時 起寢
六時半 清心기도회
七時 引導 成丁萬牧師
八時半 성경연구
指導 金德成先生
十時 發題 南宮氏氏
十一時 分團討議
十二時半 點心
一時 宗會도의
二時 閉會禮拜
九名의氏名은 如左
第一日 金宗태 姜문박 金덕삼
第二日 金진욱 金종국 金용우
第三日 南정길 金광수 卍영기

△第一日(水) 十九日
六時 起寢
六時半 清心기도회
七時 引導 成丁萬牧師
八時半 성경연구
指導 卍기환先生
十時 發題 나중남氏
十一時 休息
十二時 點心
一時 分團討議
二時半 閉會禮拜
三時半 夕陽禮拜
七時半 宗會討議
九時半 就寢